

작품 내용

제 목	누군가의 색을 빼앗아버렸다.
내 용	햇빛이 미술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미술 수행평가 시간이 끝난 뒤였지만, 미술실은 아직도 물감 냄새가 남아있었다. 학생들은 한 군데에 모여 신휘의 그림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와.. 신휘 그림 진짜 대박이다.” “진짜 화가 같다!”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신휘는 괜히 민망해져 고개를 숙였다. 미술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덜 마른 수채화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푸른 새벽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었다. 잔잔한 물 위에 홀로 떠있는 배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문장. “다 잘 될거야.” 신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한없이 부족했다. 신휘는 힘이 들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친구와 싸운 날도, 시험을 망친 날도. 그림을 그리면 막혔던 숨이 한 번에 풀린다. 신휘에게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세상이었다. 그 때, “신휘야~ 이거 SNS에 올려도 돼?”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 어? 뭐.. 그래! 그 대신 출처는 꼭 남겨주라.” “예, 예~ 당연한걸 입 아프게 굳이굳이 말 하나. 걱정 마.” 찰칵.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다. 신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림을 칭찬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이니까. 그 날 밤이었다. 신휘는 침대에 눕자마자 핸드폰을 켜 SNS에 들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았다. 익숙했다. 푸르고 잔잔한 바다, 작은 종이배, 그리고 문장까지. 하지만 게시물 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떨까요?’ 순간 손 끝이 살짝 떨렸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방금 누웠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확대했다. 이미 최대로 확대 했지만, 계속 확대했다. 댓글은 이미 200개가 넘게 달려있었다. “와, 나는 똥손인데 이 분은 금손이시네. 부러워요.”

“우와.. 이걸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거였음?”

원래는 나에게 왔어야하는 칭찬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다.

고작 그림이라고 하기엔, 이 그림의 의미가 너무 컸다.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그 시간들이 전부 증발한 느낌이었다. 신휘는 조심스럽게 댓글을 달았다.

“이 그림, 제가 그린건데요.”

잠시 뒤, 답글이 여러개가 달렸다.

“요즘에도 이런 관심종자가 있네.”

“증거 있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눈 앞이 흐려졌다.

내 그림을 빼앗긴 것도 속상했지만, 내 감정까지 가볍게 여겨진 것 같아 더 속상했다.

다음 날 미술시간.

신휘는 평소처럼 붓을 잡지 못했다. 멍하니 스케치북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술 선생님께서 다가오셨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신휘야?”

신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제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신휘야, 그림 안에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고, 누군가의 허락과 출처 없이 함부로 가져간다는 건, 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거랑 똑같은거야.”

신휘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살짝 들어올렸다. “저작권은 대단한 화가나 작곡가, 안무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림을 그리는 너 같은 학생에게도 소중한 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신휘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다. 잠시 멈춰있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창한 날에 우산을 쓰고있는 한 여자아이를 그렸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아주 조그맣게 문장을 썼다. “누군가의 마음과 시간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신휘는 자신의 그림을 SNS에 올렸다. 글의 제목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떨까요?”

글을 올리자마자 핸드폰을 켜다. SNS에 자신의 그림을 처음으로 올려봐서 두려웠다. 그 때, 알람이 수없이 울렸다. 신휘는 놀라며 핸드폰을 켜보았다. 댓글과 하트가 벌써 100개가 넘었다. 그 때, 신휘는 선생님께서 한 말씀이 떠올랐다. 그림은 단순한 이미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신휘는 자신의 그림을 출처 없이 올린 친구에게도 사과를 받고, 다시 평화로 돌아왔다. 신휘는 다짐했다. 앞으로 자신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자신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을.